

중소기업 인력부족현황과 전망

- 인력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어 영 호
중소기업청 사무관
yheo@smba.go.kr

I. 조사의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80년대 중반이후 기피업종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되어 고학력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이공계 교육의 위축 등에 따라 계속 가중되어 왔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하여 84%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전망 인력수급 불균형 요인,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산업인력양성기관, 대학, 관련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력관련 종합통계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II.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황

1. 조사 개요(2002년도)

종업원 5인이상 300인미만의 중소기업 8,460개(제조업 7,038개, 사업서비스업 1,422개)를 대상으로 전국 시·군·구 중소기업지원 담당공무원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제21조1항 및 통계법제8조(정부통계 제14202호)]

2. 조사내용

가. 인력구성

중소제조업은 단순노무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기능직, 사무관리직 순이며, 사업서비스업은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관련 직종의 비율이 높게 구성되어 있다.

나. 직종·업종·규모별 인력부족 현황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국내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현상이 만연하

국내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 하여 84%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2000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력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현황과 전망 인력수급 불균형 요인, 인력수급의 문제점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여 산업인력양성기관, 대학, 관련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력관련 종합통계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

〈직종별 인력 구성〉

(단위 : %)

	사무 관리직	생 산 직					서비스직	판매관리직	계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소계			
제조업	20.08	3.60	8.64	30.44	32.34	75.02	0.86	4.04	100.0
사업 서비스업	28.31	20.23	19.71	6.26	14.55	-	7.21	3.73	100.0

〈직종별 인력부족률〉

(단위 : %)

구 분	사무 관리직	생 산 직					서비스직	판매관리직	계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기능직	단순 노무직	소계			
제조업	4.14	9.31	9.14	10.78	11.55	10.86	3.01	6.82	9.36
사업 서비스업	3.09	7.85	8.18	7.23	5.05	-	3.29	11.98	6.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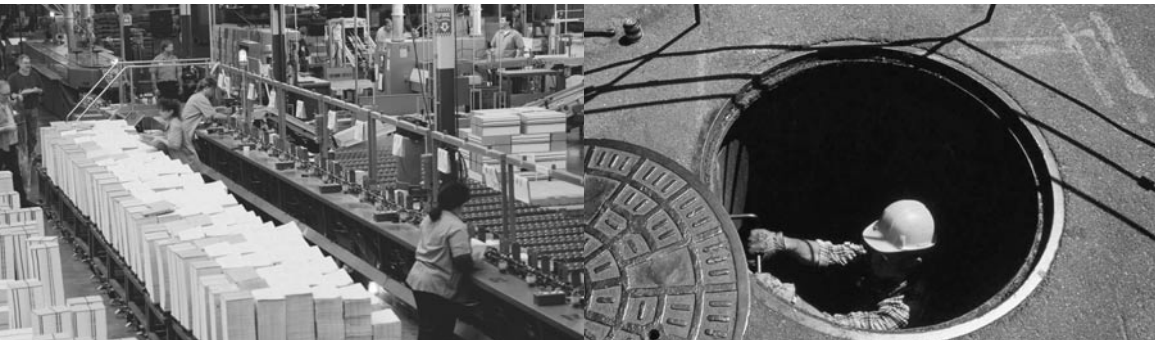
주) 인력부족률은 부족인원/적정인원(현인원+부족인원) 비율임.

여 인력 부족률이 전년대비 5.38% 증가한 9.36%로 205천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한 사업서비스업은 6.01%로 31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은 단순노무직이 사업서비스업은 판매관리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 종업원의 75.02%를 차지하는 생산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기업의 경영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재생원료가공업, 기타기계·

장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높고 사업서비스업은 정보 처리업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연구·개발업 등이 타 업종에 비해 인력 부족률이 높다.

기업 규모별로는 제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직과 판매관리직의 인력 부족률이 높고 사업서비스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관리직의 인력 부족률이 높게 나타나 기업규모가 적고 기피직무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



수족 인력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력수급상의 애로요인

중소기업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요인으로 는 중소기업 근무기피, 임금조건, 작업환경 열악 등이고 직종별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조업은 대체로 기계, 화공, 전기·통신 분야이며, 기능직의 경우는 용접, 섬유직조, 기계공구, 재봉, 금속주형 종사자 등이 구인에로가 높은 직종이고 사업서비스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 컴퓨터 관련 운영 분야이고 기능직의 경우는 기타기계 조작종사자, 전자장비 설치, 용접 및 화염절단 종사자 등이며 대부분의 기업(제조업 54.2%, 사업서비스업 38.6%)이 비정규직 인력으로 는 일용근로자, 외국인 연수생, 인턴사원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국내 인력의 채용이 어렵고, 임금이 싸며, 이직율이 낮고, 잔업을 시키기가 쉬워서이며 활용하는 비율은 제조업은 21.18%, 사업서비스업은 3.52%로 나타났고, 제조업에서는 단순노무직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반면 사

업 서비스업은 전문직 및 기술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국내근로자와 비교한 임금 및 생산성 수준은 제조업은 평균 81.49%, 86.26%로 아직까지는 임금보다 생산성 수준이 높고 사업서비스업은 평균 98.47%, 94.69%로 생산성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활용확대를 사업서비스업은 현행유지를 희망하고 있어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생산현장의 인력난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2003년도 인력부족 전망 및 맺음말

2002년 5월말 이후 중소기업의 인력증원 및 감원 계획을 고려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전년보다 1.56%로 낮은 7.80%, 사업 서비스업은 0.58% 낮은 5.43%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장인력의 부족률은 고학력화, 이공계 교육 위축, 기능인력의 급감,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크게 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계속될 전망이다 비례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의 두배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미충원된 일자리에 청년미취업자가 유입되어 인력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이다. 